

정책연구 2007-6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도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해 오는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과거에 보여준 경향과는 아주 달리 고령화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고 결국 고령인구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구를 두어 다양한 정책적 관심 및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장수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을 ‘장수의 섬’으로 불릴 만큼 많은 노인들이 장수하는 편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이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시키고, 동시에 국내외에 널리 알려 ‘장수의 섬’을 새로운 지역의 동력산업 혹은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제주가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이를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바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주지역의 새로운 장수문화의 발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4. 연구 방법	4
5. 연구의 기대 효과	4
제2장 장수문화의 일반적 특성	5
1. 장수문화의 개념적 접근	5
2. 장수문화의 가치와 산업적 효과	10
3. 제주장수문화의 특성과 잠재력	16
제3장 세계의 장수지역 : 오키나와 사례 분석	21
1. 오키나와현의 지역 개요	21
2. 오키나와 장수문화 특성 및 보존 지원책	29
3. 장수지역 사례 : 오기미(大宜味) 지역 개요	35
4. 오기미 마을의 장수문화 특성	41
5. 시사점	47
제4장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49
1.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장수지역	49
2.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전제 조건	52
3.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정책적 제언	56
제5장 결 론	67
□ 참고문헌	70

<표 목차>

<표 2-1> 노인의 생활방식 변화	8
---------------------------	---

<그림 목차>

[그림 3-1] 류큐국 표기	22
[그림 3-2] 수리성 전경	22
[그림 3-3] 미군의 포로가 된 민간인	24
[그림 3-4] 고야 참플	28
[그림 3-5] 산업별 인구	38
[그림 3-6] 농경지 전경	38
[그림 3-7] 버섯 재배	39
[그림 3-8] 양식장 전경	39
[그림 3-9] 전통 도자기	40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은 과학기술, 경제, 생활방식, 식량, 영양, 그리고 보건·의료기술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에 힘입어 크게 연장되었음.
- 특히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100년 전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아졌고,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크게 높아져 향후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평균수명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2006).
-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지만, 특정지역 노인들이 아주 오래 살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장수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도 백세인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수벨트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박삼옥 외, 2007 ; 박상철 편. 2002).
- 장수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는데, 제주, 전남, 강원, 그리고 경북의 일부 군지역이 장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장수지역으로서 다양한 특성(예컨대, 역사, 식생활 습관, 사회 환경, 노동, 가족관계, 인구학적 특성, 생활방식 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일부 장수지역은 ‘장수문화’를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지역도 역사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실제로 장수노인들이 타 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 장수지

역의 특성과 문화적 유산 보존과 관련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타 시·도의 장수지역 및 외국의 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정책적 관심 혹은 연구는 거의 없었음.

- 세계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오키나와 사례를 관찰하고, 아울러 장수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들을 파악함으로써 제주장수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오키나와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영양 및 식품, 역사, 생활문화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년 찾고 있으며, 또한 장수 식품 생산업자와 관광객들이 오키나와 지역에 오고 있음. 그래서 오키나와 지역은 장수이미지를 지역 브랜드로 상품화시켜서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세계적 장수지역으로서 오키나와 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장수문화의 관광자원화와 장수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임.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에 다양한 국제문화의 교류증진을 촉진시키고, 향후 오키나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수문화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키나와 지역주민들의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일본 전체 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100세 노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오키나와 지역은 고령자의 식생활, 사회활동 참여, 운동 등의 주요 요인이 장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주지역도 오키나와 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 식생활 습관, 자연환경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각 지역 나름대로 장수관련 연구들이 기초자료 수집 정도 차원에서 행하여져 왔고, 제주지역과 오키나와 지역간 장수비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현(縣)은 1997년부터 섬지역관광정책 포럼(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을 결성하여 상호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수문화를 관광자원화 및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장수지역(특히 오키나와)과의 문화교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목적

- 세계적 장수지역으로서 일본의 오키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장수문화 보존 정책 및 프로그램, 장수문화의 역사배경 및 발전과정, 최근 변화 상황, 그리고 장수복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
- 세계장수지역(특히 오키나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장수이미지 제고, 장수마을의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현 지방자치단체가 장수관련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사업 혹은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장수사회의 일반적 특성
- 장수문화에 대한 개념적 접근
- 일본 오키나와 장수지역의 사례 분석(역사, 발전과정, 주요 특성, 현황, 장수보존정책 및 프로그램, 장수복지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의 오키나와 현(縣)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제언

4. 연구방법

- 장수문화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문헌연구
- 사례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 - 사례조사 대상은 세계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오키나와현과 장수마을인 오기미(大宜味) 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에 근거하여 분석함.

5. 연구의 기대 효과

- 세계장수지역인 일본의 오키나와현(縣)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수 문화 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서 향후 제주지역 장수문화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 제주지역과 오키나와현(顯)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발전과 장수문화의 관광자원화, 민간교류, 사회적 가치와 유산 보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을 제고함.
- 제주지역의 장수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제2장 장수문화의 일반적 특성

1. 장수문화의 개념적 접근

가. 이미지의 사회적 구성

-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사물의 대상 뿐만 아니라 사람의 표정, 말씨, 걸모습 및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됨. 그래서 이미지는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하나의 구조로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주관적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창출, 생성 및 소멸되는 과정을 견게 됨.
- 이미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번에 걸친 다각적이며,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구성되고, 아울러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조화되어 하나의 총체적 이미지로 나타남.
- 사람들이 하나의 사물, 사람, 조직, 회사, 그리고 지역 및 국가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는 바로 개인적 혹은/그리고 사회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한 동안 개인에게 각인된 상태로 남아있게 됨.
-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지역주민과 외부인에 의해서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형성 및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음.
- 사실상 지역이미지가 어떠한에 따라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미지를 달리 갖게 되며, 반대로 지역사람들의 행동, 가치 그리고 생활방식이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기도 함. 그래서 지역이미지와 지역주민 간에는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고승한, 2004).

- 지역이미지는 단순히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인상, 느낌, 연상, 감정, 그리고 흥미를 뛰어넘어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관광,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어떤 지역의 포지셔닝은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특정지역을 지각하고 다른 지역의 특성과는 달리 비교 평가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지역의 위상을 나타냄.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포지셔닝에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최근 서울시는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균형발전 및 시민화합을 통해 서울을 고향으로 사랑하는 이미지(Lovely Seoul), 개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Friendly Seoul), 세계 일류수준으로 발전하는 이미지(High Seoul)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서울특별시·한국광고학회, 2003).
- 지역은 표적고객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의도하는 긍정적, 친화적, 상호 관계적, 매력적 이미지를 인식시켜 그 지역이 안전한 곳, 살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 평화로운 곳,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곳임을 널리 알림.

나. 장수이미지의 구성

- 특정 지역이 장수이미지를 표적고객들에게 인식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 지역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장수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브랜드로서 가치가 별로 없음.
- 특정 지역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단순히 수적으로 많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만 많으면 장수지역 이미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장수노인들이 나이도 많고(적어도 85세 이상),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즐겁게 영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한층 장수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특정 지역(혹은 마을)은 주민들이 장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예컨대, 기후, 물, 공기, 토지, 위치, 오염원 유무, 경관, 주거, 안전, 식생활, 사회활동, 노동, 운동, 교통, 복지수준, 개발정도, 의료시설, 공동체 문화 등)들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함(고승한, 2004).
- 장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존재할 때 표적고객 혹은 타 지역 주민들도 장수지역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동시에 장수지역을 방문할 의향을 갖게 될 것임.
- 그래서 특정 지역의 장수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확고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실제로 장수지역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구조화될 때 비로소 그 지역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것이고, 결국에 찾아가고 싶은 곳, 혹은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는 국내는 물론 세계 제일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장수하면 오키나와를 연상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오키나와는 단순한 장수지역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여러 학자들에 의한 노화 및 장수관련 학제적 연구, 생활습관, 생활환경, 식생활문화, 그리고 생활방식 등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음.
- 이런 장수이미지가 하나의 지역브랜드와 경쟁력으로 강하게 부각되어 결국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흥미로운 지역으로 인식되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됨.

다. 장수문화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 있으며, 예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노인들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생활방식에 따라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될 것임(표 2-1. 참고).
 - 대부분의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면 일(예컨대, 시간제/임시직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혹은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갈 것임.

<표 2-1> 노인의 생활방식 변화

분 야	과거의 노인층	새로운 노인층
심신상태	병약, 어두고, 고집 센	건강, 밝고, 유연함
생활의식	보수적, 비관적인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 인생관
노년기의 인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약, 소박, 무 취미	여유, 즐김, 개성있는 다양한 취미
독립성	자녀의 의지, 독립성 약함	배우자/사회시스템의 의지, 독립성 강함
노후설계	자녀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노후설계, 독립세대 유지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레저생활	여가는 수단	여가 자체의 가치 부여
자산처분	자손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사용
여행행태	친목단체 등 단체여행	여유있는 부부여행
취미생활	게이트볼 등 노인끼리 교류	취미의 다양화, 다른세대와 교류
생활스타일	한국전통식 생활	타문화 교류적 생활
유행감각	둔함, 후기 추종자	예민, 초기 수용자

- 이처럼 노인층은 고령사회에서 단순히 연금이나 받아 생활해 가는 소비층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 생활하는 생산층으로 변할 것임.

- 고령사회에서 새로운 노인층은 적당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일정한 소득을 얻음. 또한 자신의 부양문제도 전적으로 가족성원들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노인은 경제적 생산 능력이 없으며, 가정적·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동적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능동적 존재로 자립하고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하게 됨.
- 장수사회는 고령사회의 특성을 훨씬 벗어나 연령과 세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아울러 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보장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장수사회에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으로서 장수문화는 고령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임.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규정(social definition)이 다르기 때문임.
- 장수문화는 근본주의적 유교문화 혹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화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새로운 문화적 유형임.
- 그러므로 장수문화란 과거의 사회질서 속에서 형성된 가치, 도덕, 윤리, 사회규범, 세계관, 행동양식,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규범 등에서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노인 중심의 사회적 힘이 작용하는 특성을 보일 것임.
- 박상철(2004: 5~6)은 장수문화의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장수문화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음. 왜냐하면 장수인은 주로 특정지

역에 장기간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득하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문화의 실체를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음.

- 장수문화는 장수인의 가치와 규범을 주요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장수인이 갖는 보수적 가치와 성향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음. 그래서 장수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수인의 보수적 이념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문화에는 새로운 멋과 즐거움이 깃들여 있어야 함. 왜냐하면 노인들이 문화적 여유를 만끽하지 못하다가 노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문화적 풍토가 요구됨.
- 장수문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품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새로운 문화적 양식임. 즉 노인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정체감(Identity)과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장수문화의 중요한 요건임.

2. 장수문화의 가치와 산업적 효과

가. 장수문화의 다양한 가치

- 장수문화는 고령사회의 주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노인 혹은 장수노인들이 산업사회의 노인과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장수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인식됨.
- 노인들이 과거에는 생산 능력을 지닌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장수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게 됨.
-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서 노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무시

할 수 없는 사회적 공헌을 함으로써 이전의 맹목적 존경이나 효의 개념에서 벗어나 과거보다는 현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감.

- 장수문화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예컨대, 환경, 정치, 주거, 산업, 관광, 의료, 보건, 교육, 유행, 여가, 교통, 식생활 등)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할 것임.

1) 환경적 가치

- 장수문화에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적 환경이 우선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오래 장수하기 위한 자연환경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수노인들은 물과 공기가 깨끗한 청정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결국 오염되지 않은 환경은 생명의 보존과 연계되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음.
- 생명, 장수 그리고 청정 환경과의 상호 연관성이 긴밀하게 정립될 때 장수사회에서 환경적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음.
- 장수문화가 창출하는 환경적 가치는 환경보존과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 결국에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함.

2) 정치적 가치

- 장수사회에서 정치적 환경은 노인세대에 의한 노인정치가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임.
- 노인들이 사회적 소외세력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중심세력으로

여전히 남아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적 세력으로 강력히 등장하게 됨.

- 과거의 노인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기피하고 정치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취하여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향이 강했음.
- 그러나 장수사회에서는 노인의 정치적 세력화가 결집되어 하나의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형성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물론 노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변화보다는 질서 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장수사회 속에서 노인세대에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장수사회에서 노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는 새로운 정치적 연대와 결속의 장(場)이 형성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변화를 초래할 것임.

3) 경제적 가치

- 장수문화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발전될 것이라는 가정은 할 수 없음. 왜냐하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근거는 희박함.
- 대신에 기존의 장수연구들에 따르면 오히려 경제적 낙후지역 혹은 산업화·근대화가 덜된 지역에서 장수하는 100세인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노인문화가 지배적인 장수사회에서 장수문화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임. 왜냐하면 장수노인들이 경제적 생산능력을 상실한 소비자에 불과한 지위에서 벗어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 역

할을 하기 때문임.

- 아울러 장수문화의 확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의료관광·휴양산업, 실버산업 등)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될 것임.

4) 사회문화적 가치

- 장수사회에서 노인은 가만히 앉아서 자녀들로부터 가정에서 보호받거나 혹은 사회에서 대접받지 않고 노인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생기게 됨.
- 장수문화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서 자립심, 독립심, 자율성, 그리고 참여성 등을 강조하여 보다 주체적인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게 됨.
-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과거의 윤리적·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존경받거나 혹은 과거의 사회적 공헌에 따라 평가를 받지만, 장수사회에서는 노인에게 부여된 역할과 기능에 따라 존경과 평가를 받게 됨.
- 장수사회에서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책임도 마땅히 수행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 가정 혹은 사회에서 정당화된 권위가 형성됨.
- 그러므로 장수문화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이에 적합한 법·제도들이 재정립되는 계기를 제공함. 예컨대, 노인에게 대한 건강·의료, 주거, 여가, 교육, 교통, 식문화 등에서 새로운 접근과 정책이 등장하게 됨.

5) 학문적 가치

- 장수문화의 확산은 무엇보다도 노화 및 장수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됨.

- 사실상 노인들이 장수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복합적·종합적 연구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런 연구들이 국가별, 지역별, 학문영역별, 시대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노화 및 장수와 관련된 연구들은 생물학적, 유전학적, 의학적, 영양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과 분석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고 이런 학술적 연구가 지속될 때 장수문화 분야의 학문적 발전도 동시에 이루게 됨.

나. 산업적 효과

- 장수사회는 분명히 새로운 유형의 사회이며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유형들은 대개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관광·휴양산업, 실버산업 등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장수사회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소비자로서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할 것임.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이견직, 2007 : 75).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은 하나의 새로운 산업부문을 형성하는 미래산업으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복지국가 차원에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에 약 43.9조 원에 이를 것이고, 연간 고용창출은 약 4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이견직, 2007). 이에 따라 고령친화상품 품목은 14대 부문(예컨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교통, 의약품, 장묘, 의료, 교육, 농업, 식품)에 걸쳐 총 105개가 될 것임.

- 장수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함.
-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시장의 개방화와 더불어 의료수요자의 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및 전문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임.
- 장수문화의 올바른 정착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이 전제되어야 건강 유지와 노동활동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음. 그런 결과 장수하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주체 세력으로 거듭 날 수 있음.
- 장수사회에서 의료산업은 노인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특히 의료기기)들이 생겨나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임.
- 장수문화의 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방문 혹은 거주 선호를 증대시킬 것임.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컨대, 식생활, 노동생활, 가족 및 이웃관계, 여가생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때문임.
 - 장수지역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람 혹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화할 것임. 그래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큼.
 - 특히 장수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몸소 체험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장수마을은 발전할 잠재력이 더욱 큼.
 - 장수문화는 결국 새로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할 것임.
- 이외에도 장수문화는 개인 사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 의욕을 불러 일으켜 실버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함.

3. 제주장수문화의 특성과 잠재력

- 제주장수문화는 제주의 환경, 역사, 사회, 그리고 문화 등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음.
-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노인들이 장수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오늘날에도 전국의 타시·도에 비교하여 장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박삼옥 외, 2007).
- 제주장수문화는 대개 역사성, 환경성, 지역성, 사회성, 미래성 등을 함의하고 있음.

가. 역사성

- 제주노인들은 제주라는 역사적 삶의 주거 공간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장수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현재도 장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일찍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제주섬에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제주의 장수문화는 단시일에 형성되어 발전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 발전 및 변화를 겪어 오고 있음. 따라서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장수문화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

나. 환경성

- 제주노인들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가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농사일에 주로 참여하여 나이가 들어도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친화적 경제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음. 그래서 장수노인들은 평생 농사일을 해오거나, 80세가 넘어도 농사일을 거들면서 농촌지역에 살고 있음.

- 대다수 사람들이 제주노인들이 장수하는 요인으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지적하고 있고, 아울러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생산된 자연 식품을 주로 먹는 식생활 습관이 또한 장수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고승한, 2005).
- 자연 생태환경은 경제적 활동 공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농경지가 있어서 노인들이 운동과 농사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함.

다. 지역성

- 제주지역의 장수문화는 주로 중산간 지대 혹은 해안가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화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특히 제주지역 가운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북부 혹은 서남부 지역에 장수마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반면에 한라산 남쪽 지역에는 서귀포 지역의 근교 농촌 일부와 동부 농촌지역에 일부 장수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라. 사회성

- 제주의 장수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임.
- 제주 노인들의 주거 환경은 과거에 독립적 생활공간을 가져 자녀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음. 그래서 경제적 생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유롭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됨.
- 제주 노인들은 자신에게 노동력과 경제력이 있는 한 자녀와는 별개의 생활영역을 가져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에 대한 통제와 간섭

없이 생활함.

- 노인들이 공동체적 문화 속에서 공경을 받고,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생활은 나이가 들어도 농사일에 종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됨. 그런 결과로 노인들이 자신의 일과 역할이 있어서 가정 및 사회로부터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덜 갖게 만드는 상황임.
- 제주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항상 이웃에 친척이나 자녀들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가족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제주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노동일(특히 농사일)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이는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노후생활을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함.
- 장수노인들은 대개 해초류, 생선류, 야채류, 생선류, 그리고 전통발효식품을 선호하는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류의 식품들이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6).

마. 미래성

- 제주장수문화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존에 대한 관심 또한 강하게 대두됨.
- 그 동안 제주의 장수노인들이 체험하고 유지해 온 생활기반들이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음. 즉 가족 및 이웃관계, 경제양식, 노인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 주거문화,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의 확산, 각종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제주노인들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서 장수문화가 앞으로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역사적으로 장수지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현재에도 장수도가 가

장 높은 지역으로서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음. 왜냐하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문화도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음.

- 현재까지 제주의 장수문화를 보존해 온 다양한 문화적 자산들을 차츰 상실해 나갈 때 제주장수문화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임. 그러므로 제주장수문화의 보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

바. 산업성

- 제주의 장수노인들이 보여주는 문화적 자산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도 큼(제주발전연구원, 2004). 그래서 제주장수문화가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산업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제주지역이 그 동안 ‘관광휴양지’와 ‘평화의 섬’ 그리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장수지역’ 이미지가 추가된다면 제주지역의 관광에 매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표적고객들에게 ‘장수’라는 브랜드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임. 사람들에게 제주가 실제로 ‘장수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일은 단순하지 않음.
- 제주가 장수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독특한 브랜드로 형성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수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사실적 입증이 필요함.
- 물론 제주의 장수이미지 브랜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이미지 선택, 이미지 평가, 이미지 계획입안, 이미지 포지셔닝, 이미지 통제)와 브랜드 관리(도입, 정교화, 강화)를 보다 잘

해야 함(제주발전연구원, 2004).

- 사실상 특정 지역의 장수이미지가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를 잡아 하나의 자산 가치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임.
- 장수문화는 모든 인간이면 누구나 소망하는 보편적 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장수지역에서 거주하고 싶거나 혹은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나타날 것임. 그래서 장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예컨대, 농·수·축산물, 음식, 물, 식품 등)들도 역시 소비자 혹은 관광객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나타날 것임.
- 장수문화가 확고한 사회적 사실로 인식되고 현실적으로 수용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은 장수지역의 주민, 문화, 사회적 관계, 지리적 환경, 특산품에 강한 관심을 보일 것임.
- 따라서 제주지역의 장수이미지가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하면 그것을 이용한 산업들이 등장할 것임. 특히 다양한 분야(예컨대, 관광, 요양, 의료, 건강, 여가, 오락, 외식, 식품, 주택, 한방, 장묘, 교육, 농업 등)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잠재력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임.

제3장 세계의 장수지역 : 오키나와 사례 분석

1. 오키나와현의 지역 개요

가. 오키나와의 위치와 지형

- 오키나와는 일본열도의 동서방면에 위치하고 있다. 유라시아대륙 동단의 태평양 상에 있고, 총면적 2,266평방킬로미터로 전국 총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 동서 1,000km, 남북 400km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에 16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음. 가장 큰 섬은 1,199평방킬로미터인 오키나와도(沖繩本島)이고, 이리오모테시마(西表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미야코지마(宮古島)가 뒤를 잇고 있음.
- 가장 높은 산은 이시가키지마에 있는 해발 526미터인 오모토다케(於茂登岳), 그 다음이 오키나와도에 있는 해발 503미터인 요나하다케(与那覇岳)임.
- 오키나와 본도에서 도쿄까지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내에는 서울과 타이완, 상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가 있고, 미군은 일찍이 오키나와를 「태평양의 요석」이라고 불렀음.

나. 오키나와의 역사

- 몇 백년 동안 안지(按司 : 족장)가 섬을 다스려 왔는데, 여러 족장은 작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거듭하였고, 구스크(グスク : 성)를 지어 방어했음. 성의 폐허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음.
- 1372년, 오키나와 본도 중간에 위치한 왕국의 추잔 왕은 중국 왕실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북쪽과 남쪽의 왕국들도 재빨리 조공의 관습을 따랐고, 그 후 500년간 지속되었음.



[그림 3-5] 류큐국 표기

- 15세기, 쇼 왕조가 섬을 통일하였고, 류큐왕국의 수도는 우라소에(浦添)에서 슈리(首里)로 옮겨졌으며, 슈리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1912) 초반까지 수도 역할을 하였음.



[그림 3-6] 수리성 전경

- 1477년부터 1525년까지를 오키나와 황금기라고 불렀음. 바다 건너 중국 황제의 사신들에 의해 들어온 중국문화에 자극을 받아, 고전 음악과 춤, 무용, 문학, 도자기 등 오키나와의 다양한 예술을 꽃피웠음.
- 중국의 승인 하에 오키나와의 무역 역량은 아시아의 외딴 곳까지 뻗어나가,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군도에 부를 가져왔음. 그러나 17세기 무렵에는 일본의 세력이 급속히 신장되었음.
- 1609년 큐슈 남부의 사츠마(薩摩)국이 침공해 들어와 오키나와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철권 정치의 지배를 받으며 무거운 과세와 착취를 당하였음.
- 1879년 메이지 법령 하에 공식적으로 일본의 현(縣)이 되었음. 그러나 사츠마 정권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속국 취급을 받으며, 오키나와 고유의 언어와 류큐왕국 문화가 금지되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진짜’ 일본인이 될 것을 강요당했음.
-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국면에 오키나와 섬 주민들은 미국의 무차별 공격과 일본의 광신적인 저항 사이에서 일본 국적을 지닌 댓가로 엄청난 희생을 당하였음.
- 1945년 4월, 미군이 섬에 상륙했고 일본인은 대대적으로 저항했음. 미군의 폭격이 1944년 10월에 시작되어, 피비린내 나는 82일이 지난 후에야 점령당했음.
- 6월 23일에 전투가 종료되기까지 미군 12,500명과 일본인 약 25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인 희생자의 절반은 오키나와 민간인이었음. 절벽에서 뛰어내린 집단 자살의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일본군이 강요한 경우가 많았다고 함.
- 다른 민간인들은 석회동굴과 가족묘에 피신해 있다가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나와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음.
- 일본군 장교들은 셋푸쿠(切腹 : 할복자살의식)를 행하였음. 지하 해군

본부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미군이 승리한 후 3주가 지나서야 겨우 발견되었음. 본부의 지하 통로에는 4,000명에 이르는 해군 장교들과 병사들의 배를 갈라 자살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음.

- 오키나와 본토는 냉전 기간 중 미군의 주요 군사 기지가 되었으며, 아직도 대규모 미군부대가 섬에 남아있음.



[그림 7-3] 미군의 포로가 된 민간인

다. 총 인구

- 유인도인 48개 섬 안에 전국 총 인구의 약 1.01%인 약 129만 명이 살고 있음.

라. 기 후

- 온도 차가 적은 온난한 기후로서 연평균 기온 22.4도이고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눈도 내리지 않음. 연평균 강우량은 2,037mm로서 전국평균 1,618mm보다 훨씬 많음.

마. 산 업

- 산업의 특징은 제3차 산업 비율이 높고, 제2차 산업의 비율이 낮음.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야채나 화훼의 현외(縣外)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이 오키나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음. 현재 오키나와현을 지탱하는 가장 큰 산업은 관광업으로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사상 최고 인원인 550만 명이 입도하였음.

1) 농 업

- 오키나와의 농업은 오키나와가 류큐시대였을 때 중국에서 간쇼(감자)가 들어와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 또 감자 전래 이후 사탕수수에서 흑설탕을 만드는 방법도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았음. 흑설탕은 오키나와의 중요한 상품이고 사츠마(薩摩)를 통하여 일본본토에도 전해졌음.
- 감자는 날씨 영향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지 못했던 당시에 많은 농민들의 기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작물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얼마간은 오키나와 가정에서 주식(主食)으로 사용되었음.
- 1960년대에는 사탕수수와 과인애플 재배가 활발하게 되었고, 1972년 일본 복귀 후부터는 따뜻한 기후를 이용한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야’임. 또한 야채와 국화, 난 등의 꽃과 망고 등의 과일도 현외로 출하하게 되었음.
- 태풍과 북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림과 돌담을 쌓아 올렸고, 농업용 댐을 만들거나 물을 뿌리기 위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농업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음.

2) 어업

-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산호초 바다의 특성을 살린 양식과 다랑어, 참치 등의 어업을 주로 하고 있음.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해초인 모즈크는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그 외에도 다양한 어종의 양식을 하고 있음.

3) 관광업

- 관광은 오키나와의 주요 수입원임. 본토 복귀 전의 관광은 오키나와 전(戰)에 대한 위령방문단의 내도가 중심이었는데 복귀 후에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오키나와 문화 등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음.
- 1975년에 열린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는 오키나와현 내의 도로와 공항 등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점점 수가 늘어나 2005년에는 55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음.

사. 문 화

1) 다양한 문화 접촉에 의한 독특한 문화

- 일본본토와 떨어져 있어 색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일찍이 구스쿠시대인 12세기경부터 중국과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가졌음.
-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교류 속에서 접촉한 모든 외국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키나와 풍토에 맞춰 독자적 문화를 구축하였음. 그 상징이 류큐왕조의 성이었던 슈리성(首里城)이라 할 수 있음.
- 일본 양식과 중국 양식의 흐름을 담은 슈리성은 오키나와 문화를 대

표하는 건축물임. 또 홍형(紅型)과 류큐병(琉球絁), 파초포(芭蕉布) 등의 염직물, 쓰보야야키(壺屋焼き), 류큐칠기(琉球漆器) 등도 류큐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임.

- 음악과 예능, 문학, 음식 문화 등도 독자성이 있고, 이 독자성이야말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매력 중의 매력임.
- 오키나와 문화는 섬마다 또는 마을마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적 특색이 있음.
- 마을은 기본적인 생활단위이자 문화의 기초단위인 것임. 또한 오키나와전이 끝난 후 본토 복귀까지 27년간 미국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새로운 외래문화를 접목하게 되었음.
- 음악을 비롯하여 지금은 식탁에 완전 정착한 런천미트 등의 음식문화, 의약품과 자동차 등 미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임. 오키나와 문화를 참플문화라고 부르기도 함. 참플이란 야채와 두부, 돼지고기 등을 섞어 볶은 오키나와의 서민요리임.
- 복합문화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 요소를 승화시켜 발달시켜가고 있음. 이와 같이 오키나와 문화란 외래와의 문화를 독자적 감성으로 승화시켜 발달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음.

2) 장수의 비결 : 오키나와 요리문화

- 오키나와 장수의 비결은 오키나와 요리에 있다고 함. 전후 최대의 오키나와 붐 구성에 큰 몫을 한 것은 오키나와 요리임. ‘고야 참플’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오키나와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들은 14세기의 류큐왕조의 왕실요리에 그 비밀이 있었음. 장수요리의 대표적인 참플에는 고야참플을 비롯하여 소면, 수세미 등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두부와 돼지고기를 함

께 볶아서 만드는 것임.



[그림 3-8] 고야 참플

- 그래서 두부요리가 많고 해초류를 많이 섭취하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특정 부위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위를 재료로 사용함.

3) 오키나와 장수문화의 위기

- 오키나와의 장수가 「3C」로 위기를 맞고 있음. 남성 평균수명이 1985년까지 1위였지만 2000년 조사에서는 10위 밖으로 밀려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은 아직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수명이 더 길어지는 비율이 그다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의외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평균 여명에서는 남성은 18.45년으로 전국 최고임. 또한 100세 이상의 장수자는 10만 명당 39.5명으로 전국 최고임.
- 실제로 오키나와현 평균 수명을 낮춘 원인은 15~45세 사람의 사망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임. 그 중 30대 이상으로 당뇨병과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다고 함. 이 세대는 전후세대이고 미군 점령 하에서 생활습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이것을 오키나와의 한 의사는 「3C」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C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식품 즉 패스트푸드를 잘 먹는 것이고, 둘째는 시가렛 즉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며, 셋째는 차를 탈 기회가 많아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임.
- 이와 함께 생활습관을 고치는 야채, 두부를 많이 먹는 참플 등의 향토음식을 먹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행사 때 외에는 그다지 마시지 않았던 아와모리를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이 때문에 비만해지고 당뇨병과 지방간이 많아졌음. 야채 부족은 일본 전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오키나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좋음.

2. 오키나와 장수문화 특성 및 보존 지원책

가. 고령자 인구 특성

- 2005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고령화율은 20.1%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에 오키나와현(縣)의 2005년 10월 1일 현재의 고령화율은 16.1%에 불과하여 전국 고령화율보다 낮은 현(縣)이 되고 있음.
- 전국은 1970년에 고령화율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지만, 오키나와현은 전국보다 5년이 늦은 1975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음. 그리고 전국은 1995년에 고령화율 14% 이상의 고령사회를 맞이하였으나 오키나와현은 2000년(고령화율 13.8%)~2005년(고령화율 16.1%)으로 전국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늦음.
- 고령화율 21% 이상의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것은 전국이 2010년(고령화율 22.5%)임에 비해 오키나와현에서는 2020년(고령화율 22.6%)에야 초고령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국에 비해 15년 늦

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오키나와현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 비해서 늦은 편임.

- 고령자가 있는 세대의 비율은 가나가와현이 28.4%(47위), 도쿄도가 28.0%(46위)에 이어 오키나와현이 29.8%로 45위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65세 이상 친족이 있는 세대에 차지하는 고령부부의 비율은 20.3%로 전국 40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독거 고령자의 비율은 15.8%로 전국 16위로 전국순위의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음.
- 고령화 세대(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단독세대와 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음.
- 오키나와현은 2015년에는 전 세대 약 53만 세대 가운데 약 15만 5천 세대가 고령자 세대가 될 것이고, 그 중 약 4만 9천 세대가 단독세대, 그리고 약 4만 2천 세대가 부부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오키나와현 여성의 평균수명은 1980년 이후 2005년까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남성은 1980년, 1985년에 1위였으나 1990년에는 5위, 1995년에는 4위로 순위가 떨어졌고, 2005년에는 26위가 되었음.
- 그러나 오키나와현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인구 10만 명 대비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위를 계속 차지해 오고 있음.
- 5년마다 전국대비(전국을 1로 한 경우의 배율)로 보면 1975년이 5.46배였으나, 1980년~1995년까지가 통상 4배, 2000년에는 3배, 2005년이 2.5배로 그 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전국이 오키나와를 추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오키나와현에는 최근 새롭게 100세를 맞이한 사람은 341명(남 : 50명, 여 : 291명)으로 작년(268명)에 비해 73명 증가되었고, 처음으로 300명대를 돌파하였음.

나. 오키나와현의 고령자 보호 대책

- 고령자 지역에서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2006년도부터 시정촌마다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고령자센터에서는 고령자 본인 및 가족 등으로부터 복지, 개호서비스 등에 관한 각종 상담을 받기도 하고, 보호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고령자와 개호자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행해지고 있음.
- 또한, 고령자의 단독세대 및 고령부부 세대의 생활 근처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 일상적인 생활지원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중임.
- 구체적으로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단독세대의 요지원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니데이서비스」 및 「회식회」 등을 실시하는 외에, 「복지전화」의 설치 및 「배식서비스」, 「긴급통보체제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부 확인 및 고립감의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치회 단독으로 자치회 위원 및 민생위원, 노인클럽 등의 봉사자에 의한 지역 독거노인 등의 보호활동 등 「지역네트워크 만들기」의 대응이 진행되어지고 있음.
-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부부 및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고령자의 개호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노노개호」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 전체적으로 서로 지지해주는 구조로서 개호보험제도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음.
 - 이제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2006년 4월에는 제도전반의 수정을 실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개호예방을 중시한 개혁이 실시되어지고 있음.
- 시정촌에 있어서는 가족 및 요개호자의 상황에 따라, 시설서비스(특양, 노건, 개호요양)와 거택계서비스(방문개호, 통원개호, 방문 및 통원재활 등)를 적정하게 조합함과 동시에 지역지원사업(임의사업)에

의한 가족개호교실 및 보호사업, 배식서비스 등 고령자를 개호하는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생활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인지증 및 독거에 대응한 데이서비스, 인지증 대응 그룹홈 및 소규모·다기능형 서비스 등 지역에 밀착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고령자 개호의 대응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제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공식적 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개호보호 이외의 지원으로서는 미니데이서비스 및 회식회, 노인클럽에 의한 지원방문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보호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오키나와현에서는 가족 등이 고령자를 적절하게 개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호실습,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이외에 「고령자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있음.

다. 오키나와현의 고령자 여가문화 프로그램

1) 노인 클럽활동 지원

- 노인의 지식 및 경험을 살려,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밝은 장수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가) 노인스포츠 보급

- 노인의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후 삶의 보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스포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래서 노인이 스포츠에 익숙할 수 있도록 노인스포츠를 1973년 이후부터 현내에 보급시켜 오고 있음.

나) 노인작품 문화전

- 노인에게 있어서 늘어난 여가, 자유시간 등 긴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하는 것은 큰 문제임. 따라서 노후에 건전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예술작품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창작의욕과 사회적 활동으로의 참가의욕 향상을 도모하여 노후에 삶의 보람을 높임.

다) 노인예능제

- 노인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닦고, 동시에 지역특색이 풍부한 향토공예 및 일상 노인클럽 활동으로 연수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함.

2) 고령자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지원

-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갖고 사회와 연계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건강복지제」에 선수 파견, 삶의 보람 만들기와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카리유시 장수대학교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경로사업

- 수년간에 걸쳐 사회의 진전에 만들어진 노인을 경애하고 장수를 축하함과 동시에 노인도 스스로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도 참가하여 생활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9월 15일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복지사상 고취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가) 백세장수자에게 지사기념품 증정

- 수년간 9월 15일 「노인의 날」에 백세를 맞이한 노인분들에게 장수를

축하하며 경노사상 고취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토발전에 공헌한 공적에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지사를 시작으로 현의 세 명의 임원이 장수자를 방문하여 경축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나) 고령자 축의금의 지급

- 수년간 카지마야 축하의 고령자 등에 대해서 그 장수를 축하하고, 경노사상 고취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 공적에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경노축의금을 지급하고 있음.

라. 오키나와현의 장수연구 프로그램

- 오키나와 현의 건강 및 장수문화의 지속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현은 류큐대학 장수과학 연구 프로젝트팀(류큐대학 법문학부 관광과학과), (재)오키나와 건강장수연구개발센터, 메이오대학(인간건강학부 스포츠건강학과), 오키나와 노년학회(오키나와 국제장수회의사무국)와 상호 협력하여 연구지원을 하고 있음.

마. 오키나와현의 「세계장수지역 선언」

- 오키나와현은 1995년에 세계장수지역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앞으로 평화실천 지역으로서 의지를 다짐하는 세계장수지역 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음.

「오키나와현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주민들도 말려들게 한 국내 유일의 지상전의 장소이며, 20만 명이 넘는 존엄한 생명과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었다. 전후(戰後), 본 현(縣)은 초토화로부터 일어나 50년을 지나 오늘날 사회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장수지역이 되었다.

우리들은 이 장수지역의 달성이 현민(縣民)의 노력과 보건의료기관의 열의의 산물이며, 그 뿌리에는 혜택받은 온난한 기후, 선구자들의 영지의 결정인 전통적 식생활 및 문화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자연과 공생하며 이국(異國)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조하며 ‘공생’의 삶, 방언으로 ‘마이마르’라고 불리는 상호부조의 습관이나 형제처럼 격의 없이 지내는 ‘차리바쵸데’의 현민성(縣民性)이 있다.

더욱이 전과(戰過)의 교훈으로 ‘목숨만큼 소중한 보물’이라는 평화를 회구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지지되어온 장수지역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태평양전쟁, 오키나와전(戰) 종결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선조가 세워온 독자적인 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건강의 소중함, 평화의 존엄을 전하고 미래를 향해 전 인류의 행복의 전도사가 되도록 오키나와현이 세계장수지역임을 여기에서 선언한다。」

1995년 8월 18일

오키나와현지사 오오다 마사히데

3. 장수지역 사례 : 오기미(大宜味) 지역 개요

가. 위치와 지형

- 오기미는 오키나와 본도 북서부 북위 26°36′~26°43′, 동경 128°5′~128°12′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현청 소재지인 나하시에서 북쪽으로 약 87km, 북부권 중심부인 나고시(名護市)에서 약 22km 거리에 있음.

- 서쪽은 동지나해에 접하고, 동쪽은 오키나와 본도를 세로로 이분하고 있는 세키료(脊梁) 산지를 경계로 히가시촌(東村)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다카사토천(田嘉里川)을 낀 구니가미무라(國頭村)에, 남쪽으로는 산악지대의 분수령인 나고시에 인접해 있으며 동서 8km, 남북 14.4km, 총 면적 63.12평방킬로미터로 현 내 8번째로 큰 마을임.
- 총 면적의 약 76%는 삼림이고, 중앙에는 표고 300m 내외의 산들이 겹쳐져 있음. 그 산을 끼고 총 연장 12km의 다이호천(大保川)을 비롯한 16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동지나해로 흐르고 있음. 저지대는 극히 적고 해안에 접한 형태로 급경사진 안쪽은 표고 150~200m의 넓은 단구면(段丘面)이 발달되어 있음.
- 해안에는 산호초가 발달되어 있고 내륙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음. 또 다이호천 하구 부분에는 시오야만(塩屋灣)이 있고 해양스포츠와 절호의 양식장을 갖추고 있음.
- 토양은 네그마치치악 주변을 제외하고는 PH4 전후의 강산성 토양이어서 농작물 재배종류를 한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역 사

- 오기미촌의 역사는 1673년 쇼테이왕(尚貞王) 5년(엠포延宝 원년) 하네지마기리(羽地間切 : 현 나고시)에서 헤난(平南)·쯔하(津波) 등 2촌과 구니가미마기리(國頭間切)에서 야카비(屋嘉比)·시로(城)·네자메(根謝銘)·기조카(喜如嘉)·노하(饒波)·네로메(根路銘)·시오야(塩屋)·마에다(前田)·야후(屋古)·다미나토(田港)·도노기야(渡野喜屋) 등의 11촌을 합쳐 다미나토마기리를 창설한 것이 시초임.
- 그 후 1695년 쇼테이왕 27년(元祿 8년), 야후(屋古), 마에다(前田) 2촌을 합쳐 야후마에다(屋古前田)로 하고, 구니가미마기리에서 가와다(川田)·헤라(平良)의 2촌을 나누고, 또 다시 나누어서 오야다(親田)·미

사토(見里)·一名代·오기미(大宜味)의 4촌을 신설하여 18촌으로 오기미마리라고 개칭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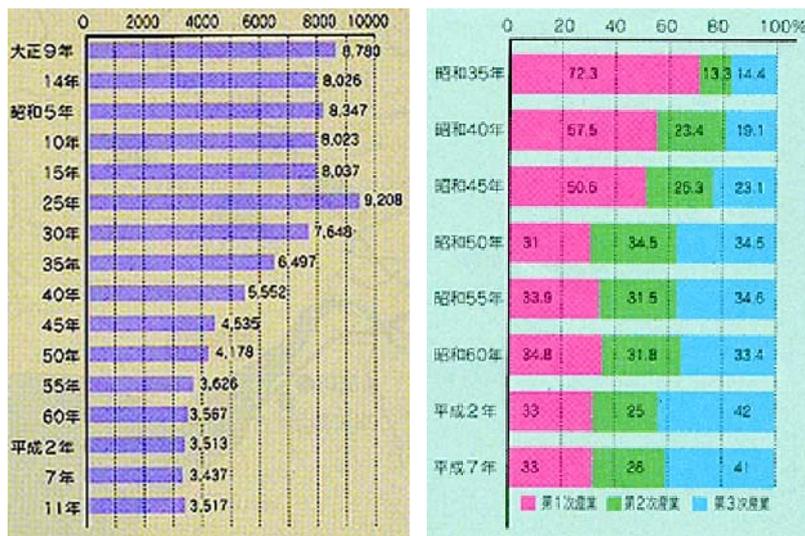
- 1719년 쇼케이왕(尙敬王) 7년(享保 4년)에는 가와다(川田)·헤라(平良) 2촌은 구시마기리에 합병되고, 여기에 현재의 오기미촌으로 되었음.
- 1908년(明治 41년) 오키나와현 도서정촌(島嶼町村)제(특별정촌제)가 시행되어 초대 촌장은 지사가 되고 수입역(收入役)과 서기(書記)는 구 니가미군장으로부터 임명되었음.
- 그 후 1920년(다이쇼 9년)에는 보통 정촌제가 시행되고 관선촌장에서 민선촌장이 되었고 조역(助役)·수입역(收入役)은 촌장과 촌회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었고 현 오기미촌제가 발족되었음.

다. 총 인구

- 다이쇼(大正) 8년 제1회 국세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인구는 8,780명이였다. 이후 세계대전까지는 8,000명대였지만 전후 어느 시기에는 중남부 지역에서 피난민을 받아들여 9,000명이 넘는 적도 있었음.
- 그 후 류큐정부 정책에 의해 야에산(八重山)과 남미로 이주가 활발하게 되고 고도 성장기에 인구의 도시유출에 따라 인구는 격감했음. 쇼와(昭和) 50년대(1975년) 중반까지 3,000명대까지 줄어들었으나 고용 확대와 농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점차 젊은이들이 촌으로 귀향하게 되어 안정화에 들어가는 추세임.

라. 산업별 인구

- 전후 급속한 인구감소는 1차산업의 인구감소로 인해 일어났음. 쇼와(昭和) 30년대에 70%를 넘었던 1차산업 인구는 쇼와(昭和) 50년대(1975년)에는 30%대로 떨어지고 그 후는 거의 안정되었음. 건설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 인구가 증가하였음. 최근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3-5] 산업별 인구

마. 주요 산업

1) 농 업

- 전후에 농업은 오기미촌의 기간산업으로 유지되어 음. 사탕수수, 파인애플, 감귤류가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화훼, 열대과일, 관엽식물 등 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음. 축산으로는 닭과 돼지, 소 사육을 하고 있고 농업의 조생산액에 접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음.



[그림 3-6] 농경지 전경

2) 임업

- 과거에 지역의 중요 산업이었던 에너지원으로서의 임업은 거의 없어졌지만 녹화목이나 목공제품, 버섯생산 등이 점차 늘고 있음. 귀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식재를 하거나 천연림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3-7] 버섯 재배

3) 수산업

- 전후 농업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시오야만의 천혜의 환경을 살린 고급어종의 양식이 활발함.



[그림 3-8] 양식장 전경

4) 상공업

- 상업은 각 협동점과 소규모 잡화점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공업은 파초, 직포, 아와모리(오키나와 전통주), 목공, 도기제조, 이초제품 가공 등 특색있는 산업을 펼치고 있음.



[그림 3-9] 전통 도자기

5) 관광업

-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 오기미’ 등이 관광거점이 되고 있음. 천혜의 자연, 독특한 문화와 역사, 예술, 축제 등이 있고 앞으로 이들을 살린 관광을 모색하고 있음.

바. 학교교육

- 촌내에는 유치원 1, 초등학교 4, 중학교 1개를 가지고 있음.

사. 의료 복지시설

- 쇼와(昭和) 57년(1982년)에 신체장애인의 요양시설인 「一心療護園」, 헤세이(平成) 5년에는 지적장애인지역인 「에쓰노마찌」, 그리고 헤세이 10년에 특별양호 노인홈 「안바루집」이 설치되었음.
- 이처럼 시설의 충실함을 피하면서 고령자 복지는 재택 복지서비스 강화에 의해 특히 홈헬프서비스 등에 충실을 피하고 있음.

4. 오기미 마을의 장수문화 특성

가. 오기미 마을의 문화적 이미지

- 장수의 마을 :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제일의 장수의 마을
- 바쇼의 마을 : 세계에서 유명한 바쇼천의 산지, 향기 짙은 전통공예의 마을
- 시크와사의 마을 : 맛있는 시크와사(귤과에 속하는 오키나와 특산 과일)가 가득 있는 황금의 마을
- 브나가야의 마을 : 브나가야가 풍부한 자연과 인정미가 매력적으로 살아있는 평화로운 마을

나. 고령자 인구 현황

- 오기미 마을에는 크고 작은 17개의 행정구가 있고, 2007년 3월 31일 현재 마을 전체의 총인구는 3,478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49명, 고령화율은 30.1%임.
- 행정구역별로 특히 인구가 많은 곳이 담옥으로 590명, 다음으로 율파가 501명, 희여수가 242명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백병으로 23명이며, 이는 담옥과 비교해 보면 무려 24.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곳은 총인구 수와 비슷하게 담옥이 213명, 율파가 151명, 희여수가 144명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고령화율은 백병이 47.8%로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사망성이 39.6%, 압천이 38.9%, 옥고는 15.2% 순으로 나타남. 그래서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의 고령화율 30.1%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다. 오기미촌의 마을정신

- 인정미가 넘침
- 상호부조, 유이마루 정신(한국의 '품앗이' 정신)
- 진취성
- 혁신성
-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라. 오기미 마을의 식생활 특징

- 오기미촌의 땅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살린 소박하고 전통적인 식생활
- 육류(돼지고기) 섭취량이 많음
- 녹황색 채소의 섭취량이 많음
- 두부류의 섭취량이 많음
- 과실류 섭취가 많음
- 식염 섭취량이 적음
- 시크와샤(꿀과에 속하는 오키나와 특산 과일)를 넣은 요리가 많음

마. 오기미 마을의 고령자 생활상

- 고령자들 가운데 약 30%가 독립세대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고령자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 음식을 먹고 있고 주로 야채류 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있으나 20% 정도의 고령자는 외부 기관에서 배식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음.
- 고령자는 월 7만 엔 이상의 생활비가 들고, 금전관리는 아내에게 맡기고, 남성 노인은 여성에게 생활의존도가 높음.
- 고령자 가운데 80%가 자신의 가계(家系)는 장수가계(長壽家系)로 인식하고 있음.

- 고령자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70% 정도 노인들은 병·의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
- 고령노인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의식이 높음. 남성 노인은 이웃과의 관계되는 일은 주로 아내에게 맡기고, 집단에서 취미활동은 거의 없고 외부의 일을 주로 하는 편임.
- 대부분의 고령자는 가족과 지내는 일상생활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기 집에서 여생을 마친다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친족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음.
- 고령자 노인들은 개호보험 및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고령자들은 하루 생활 리듬 안에 적당한 휴식시간(오후 수면 등)을 넣고 있음.
- 고령자들은 ‘어떻게든 되겠지’, ‘어쩌다 만난 사람도 형제와 같다’와 같이 넉넉하고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생활하는 편임.

바. 오기미 마을 「일본 제일의 장수 선언」

- 「80세는 아동에 불과하고, 90세가 되어 마중 나오면 100세까지 기다려라고 내쫓는다. 우리들이 늙어서 점점 더 의기가 왕성해지고, 늙어서는 자녀들에게 응석 부리지 말라. 장수를 자랑하려거든 우리 마을로 오라. 자연의 은혜와 장수의 비결을 알려주마. 우리 오기미촌 노인은 여기서 일본 제일의 장수를 드높여 선언한다」.

1993년 4월 23일.

오기미촌 노인클럽연합회

- 오기미 마을의 장수 비결은 다음과 같음.
 - 청정한 자연환경과 인정미 넘치는 문화적으로 평화로운 오기미촌

- 고령사회이므로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는 결속정신이 강하고, 인간 관계가 따뜻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가 구축되어 있음.
- 심적으로 넉넉한 생활과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어쩌다 만난 사람도 형제와 같다’ 등 낙천적 심리적 상태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
- 노인들의 높은 사회 활동성
 - 살아있는 동안 현역이라는 의식이 매우 높음.
 - 고령이 되었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밭일을 하거나, 마을의 전통산업인 바쇼포의 실을 삼거나, 노동, 운동 그 외 마을 행사나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고령자에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고(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취업률이 43%), 그리고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개인 농원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식량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음.
 - 농사를 지어서 남는 곡식 혹은 작물은 이웃과 나누거나 혹은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기도 함.
- 지역활동
 - 마을주민의 생활전반에 ‘유이마루’(한국의 품앗이)의 정신이 뿌리 깊고, 마을 사람의 노동력을 상호간에 제공하기도 하고 협동적·상호 부조적 활동이 구축되어 있음.
- 오기미 마을 노인들의 건강
 - 건강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많고 게이트볼 등 스포츠 활동이 활발함.
 - 가라오케 클럽, 민요 클럽, 댄스 클럽, 다이쇼금 클럽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노인과 비교해서 오기미 마을의 노인들의 얼굴들은 표정, 자세, 동작의 기민성 등이 월등히 젊어 보임.
- 따라서 오기미 마을의 장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청정한 자연환경, 인정미 넘치는 마을 주민의 생활 태도, 정신적·심리적 안

정감, 노동활동에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통한 유대관계의 강화, 그리고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다양한 운동 및 활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 유지 등으로 지적될 수 있음.

사. 오기미 마을의 장수문화의 목표 및 활성화 방안

- 오기미 마을은 「제4차 오기미촌 종합계획」에서 마을의 발전 목표를 「밝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두고 있음. 그래서 다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 건강 넘치는 장수의 마을

- 개호예방 서비스의 실현 등을 통해서 모든 고령자들이 전 생애에서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짐.
- ‘건강한 65세’부터 ‘활동적인 85세’를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습관 병 예방 대책과 더불어 생활기능저하 예방대책을 수립함.
- 생활 주기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응한 보건복지사업을 전개하여 건강 장수의 연장에 노력함.

2) 편안함 넘치는 장수의 마을

- 오기미 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들을 통해 연대감을 소중히 하고, 아울러 고령자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함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발전 목표로 둬.
-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재택개호(재택노인복지서비스)를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지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함.
- 인지증 고령자를 위한 케어서비스의 충실을 기하고 고령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심성의 케어서비스를 실시함.

3) 언제까지라도 살고 싶은 장수의 마을

- 오기미 마을에서는 언제까지라도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발전 목표로 삼음.

아. 오기미 마을 장수문화의 위기와 도전

- 오기미 마을은 현재 혹은 앞으로 젊은이의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으로 농·어업 종사 인력의 부족, 산업의 침체, 지역 활력의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면 장수문화의 지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새로운 생활양식의 변화(특히 젊은 층의 식생활 습관 등)가 장수지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음.
- 그러나 오기미 마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보건, 복지환경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오기미 마을 장수이미지를 지탱하고 있는 고령자의 생활양식을 배워 현대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임.
- 오기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장수의 마을, 시크와사의 마을, 바쇼포의 마을, 브나가야의 마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마을 발전을 도모함.
- 특산품 개발 및 관광,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 높은 오기미 브랜드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오기미 마을에 대한 건강 및 장수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시사점

- 오키나와는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 온 결과로 섬마다 마을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의 매력을 가져다 줌.
- 오키나와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는데 특히 일본 본토와 미국의 점령은 오키나와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음. 특히 25년 동안 미국의 점령과 그 이후 미국 주둔으로 인한 서구식 생활 습관(특히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햄버그, 튀김음식 등)의 확산으로 장수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오키나와 지역은 주로 농업생산 및 영농활동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으며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 및 독특한 문화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옴.
- 오키나와는 외래문화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고유한 음식문화를 창출하여 왔으며 특히 오키나와 장수 비결의 하나인 ‘고야 참플’은 현재에도 오키나와의 일반 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 요리임.
-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인구의 도시유출로 말미암아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농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점차 젊은이들이 귀농하는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문화가 점점 쇠퇴하는 징후들을 목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선호하고, 전통 음식(특히 참플)을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야채식 기피, 그리고 자동차 이용에 의한 운동 부족 등이 장수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평균수명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10만 명당 39.5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오키나와 지역에서 전개되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장

수문화의 훼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오키나와현은 고령자 혹은 장수노인을 위한 의료, 보건, 복지, 여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예컨대, 고령자 개호보험제도, 고령자보호네트워크 구축, 미니데이서비스, 회식회, 복지전화, 배식서비스, 긴급통보체제정비사업, 거택계서비스, 개호실습보급센터,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노인스포츠 보급, 노인작품 문화전, 노인예능제, 전국 건강복지제 참가, 장수대학교의 운영, 100세인 경로사업, 건강장수 연구프로젝트 지원 등)들을 실행하여 장수문화 보존을 도모하고 있음.
- 오기미 마을은 일본 제일의 장수지역임을 선언하여 그런 자부심과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장수마을로서 특색있는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오기미 마을의 장수 문화에는 오기미 마을이 지닌 독특한 청정 자연환경, 마을주민의 생활방식(인정미, 상호 협동·나눔의 정신, 진취성, 혁신성, 평화 사랑 등), 식생활(소박한 전통적 식습관, 야채식 위주, 두부·돼지고기·과실류 섭취 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오기미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특히 오키나와현 지방정부)이 일본 제일의 장수지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수 보존 정책 및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오기미 마을 주민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장수지역의 위협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음.

제4장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1. 문화교류의 장(場)으로서 장수지역

가. 장수사회와 문화

- 장수사회(Long Live Society)는 흔히 고령사회(Aged Society)와 달리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박상철, 2007:29-30).
 - ① 구성원들이 연령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화로운 사회
 - ② 노인들이 대접받고 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
 - ③ 고령자들을 사회적 시스템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제한하고 피동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사회건설과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 이처럼 장수사회는 기존 사회와는 전혀 새로운 생활양식을 일상화하는 문화적 토양과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노인 혹은 고령자의 이미지, 언어, 행동, 취미, 여가, 생활방식, 유행, 주거 등과 같은 문화적 양식들이 달리 인식될 것임.
- 장수사회에서 노인 혹은 고령자들이 사회적 중추세력으로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새로운 노인문화 혹은 장수문화가 도래함.
- 이처럼 장수사회의 새로운 장수문화에서 문화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새로운 문화상품들을 끊임없이 생산 및 유통시켜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것임.

- 장수사회에서 고령자는 바로 문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장수문화의 변화에 동참하게 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장수지역의 노인들이 장수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이고 그런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계승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또한 장수지역의 노인들은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장(場)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직·간접으로 하게 됨.

나. 장수지역과 문화교류

- 장수지역은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성, 고유성, 독특성 등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교류의 장(場)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일 특정 지역 혹은 사회가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보이는 장수지역과 만났을 때 문화적 충격 혹은 문화적 차별성을 인식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서로 상이한 지역 간에 문화적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여 자신의 문화적 독특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장수지역 노인들이 과거 전통적 생활방식에 따른 식생활, 노동, 건강, 주거 등에 의해서 형성된 장수문화가 바로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해 익숙해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그러므로 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는 다양한 주체(예컨대, 행정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 정치·행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 및 분권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분야를 제외한 영역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도시와 다양한 분야(예컨대, 행정·인력, 경제·통상, 학·문화·예술, 청소년·체육, 친선·교류, 민간교류 등)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화 및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음(제주발전연구원, 2007)
 -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고, 아울러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국제화 하는데 필수적임.
 - 인력과 문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은 물론 지역개발과 각종 협력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여야만 세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함.
 - 선진화된 기술과 지식정보를 입수하여 지역산업 등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우수사례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에 국제교류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에 기여함.
 - 국제적인 교류행사(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교류 등)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친선과 신뢰관계 증진을 도모함.
-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는 일본의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의 일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계장수지역으로서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지방정부간 혹은 민간단체와의 교류는 서로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전제 조건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세계장수지역으로서 오키나와현(縣)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를 원하는 양측 간에 서로 수용해야 할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할 것임.

가. 개방성

- 타 지역 혹은 외국과의 문화교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개방성에 바탕을 두어야 함. 특정 지역이 전통문화 혹은 지역문화를 다른 지역의 사람 혹은 외국 문화에 개방하고 널리 전파 및 확산하려는 개방화 정책 및 지역주민의 개방마인드가 중요함.
- 문화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에 경계를 허물어 서로에게 전파되어 동화되고 변화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개방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와의 교류는 사실상 어렵게 됨.
-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는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으로 나가야 하지만 외래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점은 배제해 나가야 할 것임.
- 문화교류에서 개방화 접근은 문화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문제지만 일방적 문화 전파가 아닌 상호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함.

나. 문화적 상대성

- 특정지역의 장수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는 문화적 편파성에 바탕을 두어 문화교류를 할 경우는 일방적 문화교류일 수 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 간 문화교류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여 독 특성과 차별성을 인정해 주는 태도가 중요함.

- 특정지역의 장수문화가 가지는 특성과 관련된 역사, 환경, 식생활 습 관,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에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적 상대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존경 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다. 상호협력성

- 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문화교류에 관여된 다 양한 주체간에 상호 협력이 필요함. 문화교류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되었건 혹은 민간단체가 되었건 상관없이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 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특정 지역간 문화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경우에는 더욱 긴밀 한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특정 부서 혹은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지속성

- 문화교류는 일시적 행사 혹은 이벤트로 끝나면 교류하는 상호 지역 에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임.
- 장수문화를 매개로 두 지역의 문화교류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문화 교류의 정기적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문 화교류가 아닌 일회성 문화행사로 끝나기가 쉬움.
- 문화교류의 지속성은 지역간 문화발전과 다른 분야의 발전으로 연계 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마. 계획성

- 다른 지역과의 문화교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작하여야 할 것임. 특히 외래문화를 수용하거나 혹은 외국의 생소한 문화적 특성들을 수용하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접근하면 기대효과를 얻기가 힘들.
- 외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특히 외교적 절차 및 격식, 언어소통, 교통, 담당 주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외국의 다른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단시일에 걸쳐 어떤 발전을 거두겠다는 조급성을 벗어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바. 실천성

- 행정기관 혹은 민간단체가 실행하는 문화교류는 가끔 관행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음. 예컨대, 문화교류에 관여하는 주체들 간에 어떤 교류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단순한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류 주체들 간에 교류사업의 실천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교류의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임.

사. 실용성

- 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는 교류를 실천하는 두 지역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지역이 문화교류의 수혜자가 되거나 혹은 공급자 지위에 머무를 경우에 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는 일시적 교류로 끝날 가능성이 많음.

-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두 지역은 상대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와 교류사업의 추진으로 상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문화교류의 실용성 원칙은 각 지역이 가지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촉구할 것임.

아. 예산지원 가능성

-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에 재정적 지원 문제가 매우 중요함. 만일 문화교류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임.
-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두 지역간에 교류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자. 지역주민의 참여성

- 문화교류와 관련된 여러 주체(행정기관, 민간단체 등)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관심과 참여를 갖느냐는 문화교류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문화교류가 처음에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계획·지원되어 추진되지만 점차 민간교류 차원으로 확대·발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지역주민 스스로 민간교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교류사업의 발굴에 앞장서는 적극적 참여의식과 활동이 제고되면 문화교류의 실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 만일 지역주민이 지역간 문화교류에 무관심하여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

라 지역발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차.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 일시적 문화교류의 행사로 끝나면 지역간에는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임.
- 문화교류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3.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정책적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장수지역(특히 오키나와)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장수의 섬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가 관광분야에 이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두 지역이 장수지역이기 때문에 장수문화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면 두지역의 산업, 관광, 의료, 복지 및 학술 분야의 지역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이를 위해서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현과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를 시작하고 이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물론 오키나와현과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 상대 지역과의 합

의와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다음의 정책적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음.

가 제도적 지원 체제 강화

1) 조직·인력 배치

-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담당할 총괄 담당 부서가 조직되어야 할 것임. 특히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문제, 상호주의 원칙, 역사·문화적 배경, 그리고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실천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법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총괄부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 물론 민간단체가 외국의 장수지역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시도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 상담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0월에 제정되어 평화협력과 국제교류담당 부서에서 소관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음.
- 물론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현과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수노인 및 장수문화 보존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평화협력과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정책의 실효성과 업무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행정기관에서 추진되던지 혹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던지 상관없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조직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 할 것임.

2) 예산 확충

- 외국도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하는데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교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 이런 조항에 근거하여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지만 예산규모 및 예산지원 기간은 문화교류 사업의 성격, 추진상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지만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사업의 예산 확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3) (가칭) 세계장수문화교류추진단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및 노인복지 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추진을 위해서 일시적 조직으로 (가칭)세계장수문화교류추진단을 구성하는 일도 바람직함.
- (가칭)세계장수문화교류추진단은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 추진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아 운영함.

나. 제주장수마을 및 장수노인의 보존 대책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장수문화교류를 위해서 먼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제주지역의 장수마을과 장수노인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만일 제주지역에는 장수마을과 장수노인도 별로 없고 이에 대한 보존 및 복지대책이 없으면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 이럴 경우에 세계장수지역으로서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장수문화 교류 사업은 일방적인 교류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오키나와 외래문화의 수용에 머물고, 또한 일시적 문화행사로 끝나기가 쉬움.
-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주지역이 역사적으로 ‘장수의 섬’이고 현재에도 전국에서도 장수도(長壽度)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일본의 오기미 마을 못지않은 장수마을과 장수노인 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임. 그래야 앞으로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사업에서 제주지역이 당당한 주체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음.

1) 대표적 장수마을의 지정

- 제주지역에도 여러 장수마을이 있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공식 인정받고 한국제일의 장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없음. 다만 현재까지 연구에 의한 장수마을 선정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6)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영천동, 대정읍 하모2리, 애월읍 고성2리, 한경면 산양리, 한림읍 강구리, 대정읍 신도3리 등이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의해서 장수마을로 선정되었음.
- 여러 장수마을 가운데 제주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수마을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할 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수 있음.

- 따라서 장수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제주장수마을 가운데 ‘한국제일의 장수마을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수도가 높고 장수마을로서 독특한 문화를 갖춘 장수마을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국제일의 장수마을이 선정되면 장수마을에 대한 보존 및 발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수노인의 보존 대책

-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려면 우선 제주장수노인들에 대한 보존 및 복지 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비록 제주지역에 장수노인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가 역효과를 초래할지도 모름.
- 제주장수노인에 대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복지대책에 대한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장수노인의 경제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부양제도(예컨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장수노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가족과 함께 사는 장수노인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으로 홀로 사는 장수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예컨대, 방 구조, 부엌, 화장실, 계단, 이동, 비상연락 시스템 등)이 필요함.
 - 장수노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 서비스(예컨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방문간호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 등)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원스톱(One-Stop)체제가 조기에 정착화 되고,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노인의 여가 및 사회적 활동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취미활동, 건강, 교양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장수노인들이 실제로 친구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100세 이상 장수노인 경로사업에 대한 도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예컨대, 100세인 축하 잔치, 기념품·메달증정, 사진촬영, 방문의 날 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노인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수당 지급, 장수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종합건강진단 사업, 보장구 지급사업, 노인급식프로그램 지원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
- 제주장수노인의 보존대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은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수지역과 장수노인에 대한 학술적 검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문화교류의 민·관 협력체제 구축

1)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협력과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커다란 의미가 있겠지만 행정기관이 모든 교류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이 서로 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교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위해서 먼저 제주지역의 장수 마을 및 마을주민, 장수노인, 노인회, 노인복지관련 단체 등과 행정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가질 필요성이 있음.
- 행정기관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초기부터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설득하고, 민간교류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과 전략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2) (가칭) 세계장수문화교류협의회 구성

-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진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왜냐하면 문화교류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때 참여와 지속성이 더욱 높고 여기에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의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도 점차 민간단체에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문화교류의 실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문화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강한 정책적 의지, 예산지원 및 인력 확충이 전제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교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 맥락에서 (가칭)세계장수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가칭)세계장수문화교류협의회는 민간단체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활동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은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있음.

마. 장수문화의 산업화 전략 구축

1) 관광자원화 전략 수립

- 오늘날 문화는 단순히 유·무형의 문화적 존재 형태로만 남아있지 않고 문화적 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발전시키는 노력들이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예컨대, 장수마을과 장수노인의 삶의 방식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가치에 의미를 두면, 장수문화가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적극적 홍보를 강화하면 새로운 관광자원화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는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두 지역이 문화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그에 따른 관광효과가 증대할 것임. 예컨대 두 지역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제주장수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장수마을의 탐방 및 관광코스 개발
 - 제주장수마을의 전통, 식생활 및 생활습관 체험
 - 제주장수마을의 장수식품 개발
 - 제주장수마을의 장수 축제 개최
 - 제주장수마을의 자매결연 맺기
 - 장수 관련 각종 학술 행사 개최
 - 장수캐릭터 개발
 - 제주장수마을 홈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주장수마을의 복지평화 공동체 가꾸기 사업

2) 고령친화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강화

-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활성화는 제주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음.
-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한 분야(예컨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식품, 장묘, 교육 등)에 34개 전략 품목들이 있음. 이 가운데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 품목들은 대개 관광휴양, 요양서비스, 고령친화휴양지, 의료관광, 한방보건관광, 노인성질환한약, 노인용 한방화장품,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건강기능식품, 노인 교육 등과 관련될 것임.
-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의 발굴·육성과 관련된 과제는 별도로 수행될 사안이지만 제주장수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제주도는 관광, 의료, 요양, 농업, 식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전략 품목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장수문화의 상품화를 지역의 산업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바. 장수문화 해설사 인력 양성 지원

-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장수문화 및 오키나와 장수문화를 동시에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장수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없이 제주장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상품화시켜 관광 및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일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제주장수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혹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가칭)제주장수문화해설사인력양성단을 구성하여 제주장수문화 혹은 오키나와 장수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정 개설이 요구됨.

- 이런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에게 (가칭)장수문화해설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세계장수지역 문화교류 사업 관련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사. 학술교류의 지원 체제 구축

1) 연구 기반 인프라 구축

- 제주도가 세계적 장수지역으로 발전하고, 아울러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에 앞서 제주가 장수지역이라는 과학적, 의학적, 영양학적, 그리고 인구학적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일본 오키나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키나와 류큐대학 부설의 세계장수연구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오기미 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수지역을 연구 조사해 온 결과로 세계장수지역으로 선언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2003년 3월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제주장수문화 및 장수노인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연구비 및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학술적 기초조사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획기적 연구 지원이 필요함.
- 그렇지 않으면 (가칭)제주장수사회종합연구원을 새롭게 설립하여 고령사회, 장수문화 및 장수노인 등 전반에 걸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노화종합연구소를 제주에 유치하거나 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내에 국립노화예방연구소가 설립될 필요가 있음.

- 제주장수문화 및 장수노인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 및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제주장수마을, 장수노인, 그리고 장수관련 다양한 분야(예컨대, 유전자, 의학, 식품, 영양, 지리, 생활 등)에 대한 학술 연구 사업의 지원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결국 제주지역의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세계장수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2) 대학의 장수문화 연구 기능의 강화 및 연구기관 교류 활성화

- 제주대학교의 탐라문화연구소 혹은 사회과학연구소가 제주장수문화 관련 연구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의과대학에는 제주장수노인 관련 다양한 의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장수노인 및 장수문화 연구프로젝트 추진이 오키나와 류큐대학 세계장수연구센터와 공동연구협력 관계를 맺어 상호 각종 조사연구 정보를 상호 교환·공유함으로써 학술적 발전과 세계장수지역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더 나아가 제주대학교와 류큐대학교 간에 장수문화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술연구 분야(예컨대, 역사, 문화, 지리, 산업, 관광, 식품, 의학 등)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장수식품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수산업 혹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학술적 연구에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결 론

- 본 연구는 장수문화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 및 오기미 장수마을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오키나와 및 오기미 마을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21세기 장수사회에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으로서 장수문화는 지금까지 고령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임.
- 장수문화는 지역성, 환경성, 사회성, 문화성, 산업성, 미래성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장수문화는 복합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 세계적 장수지역으로서 장수문화의 사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래서 오키나와와 오기미 장수마을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장수문화에는 지역의 역사, 청정자연환경, 식생활 습관, 낙천적 성격, 건강식품, 생활문화,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장수마을과 문화교류를 추진하기에 앞서 중요한 전제조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예컨대, 문화교류 추진에 있어서 개방성, 문화적 상대성, 상호협력성, 지속성, 계획성, 실천성, 실용성, 예산지원 가능성, 지역주민의 참여성,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장수지역(특히 오키나와현)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적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는 제도적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2006년 10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나가면 될 것임. 그래서 국제교류와 노인복지 담당하는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지 않으면 (가칭)세계장수문화교류추진단을 일 정 기간 동안 구성·운영하여 장수문화교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함.
- 둘째, 세계장수지역인 오키나와현 혹은 오기미 마을과의 장수문화 교류 를 통한 상호 이익을 위해서 먼저 제주장수마을 및 장수노인에 대한 보 존 대책을 강화하여야 함.
 - 제주지역에서도 대표적 장수마을을 선정하여 한국제일의 장수마을 선언식을 거행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장수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대책(예컨대, 소득보장, 주거환경 개선,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경로사업 등)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질적 개선이 필 요함.
- 셋째, 장수문화 관련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일환으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적극 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그래서 행정기관과 민간(예컨 대, 장수마을, 마을주민, 장수노인, 노인회, 노인복지관련 단체 등)과 네 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가칭)세계장수문화교류협의회 를 만들어 민간단체 중심의 문화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는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산 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두 지역이 장수문화교류 사업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고령친

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및 오키나와 장수문화를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가칭)제주장수문화해설사인력양성단을 만들어 다양한 장수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정한 교과과정을 마친 수강생에게 (가칭)장수문화해설사 자격증을 발급함.
- 여섯째, 세계장수지역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장수노인, 장수문화 및 노화연구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혹은 새롭게 (가칭)제주장수사회종합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 인프라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끝으로, 제주지역에 있는 대학과 오키나와 지역의 대학 간에 장수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분야(예컨대, 역사, 문화, 지리, 산업, 관광, 식품, 의학 등)에서 연구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제주지역 내 대학들 간에도 장수식품 개발,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관련한 학술연구에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1. 고승한·양창식. 「장수이미지 브랜드 연구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2004.
2. 고승한·고보선.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05.
3. 박삼옥 외.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 변화와 대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4. 박상철 편. 「한국의 백세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5. _____ “장수벨트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제주장수문화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pp.3-13.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제주도. 2004.
6. 서울특별시·한국광고학회 편. 「21C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통합 마케팅 전략 연구 방안」 서울특별시. 2003.
7. 이견직.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21세기 제주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 pp.69-85. 제주발전연구원·제주도. 2007.
8. 제주발전연구원. 「장수이미지 브랜드 연구개발」 2004.
9. _____ 「지방외교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007.
10.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장수마을 선정 및 장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품개발 기초조사」 2006.
11. 鈴木信. 「沖縄の高齡者, 沖縄の人と心」 沖縄心理學會編, 九州大學出版會, 1994.
12. 오키나와 오기미촌 복지과. 「大宜味高齡者福祉資料」 2007.
13. 오키나와 오기미촌. 「長壽村의 秘密」 2007.

14. 오키나와의 장수 '3C'로 기로에, 2004. 11. 6, 일본게이지아이신문
<http://www.white-family.or.jp/healthy-island/htm/repototo/repo-to272.htm>
15. 오키나와현의 개요, 오키나와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okinawa.jp/>
16. 오기미촌의 개요, 오기미촌 홈페이지
<http://www.vill.ogimi.okinawa.jp/>
17. 오키나와 장수의 비결
<http://plaza.rakuten.co.jp/happyarigatou/diary>
18. 오키나와 장수의 제 원인, 류큐대학과학 연구프로젝트
<http://www.choju.net/>
19. 오키나와 장수이야기 <http://www.gincha.com/oki/oki1.html>
20. 오키나와 장수요리의 비결 오키나와요리
<http://jisho3.com/okinawa-chouju/>
21. 오키나와 출신자의 수명
<http://www.bl.mmtr.or.jp/~shinjou/74oki.htm>
22. 장수의 고장 오키나와
<http://www.osaka-c.ed.jp/matsubara/kadai/27ki/kadair29.htm>
23. 오키나와의 장수와 음식
http://www.pref.okinawa.jp/summit/jp/tokusyu_6/index.htm
24. 고야 100만 마력, 철저 해부
<http://www.bitby-bit.com/~gohyah/bariki/bariki3-01.html>

연 구 진

연구책임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이 창 익 (제주대학교 교수)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064-758-1500)

ISBN 978-89-6010-027-5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